

韓國政治文化的 性格에 關한 考察

康 根 亨 *

目 次

- | | |
|------------------|-----------------------|
| I. 序 論 | III. 韓國政治文化的 二元性 |
| II. 韓國政治文化的 基本性格 | : 權威主義的 定向 對 民主主義的 定向 |
| : 權威主義的 定向 | IV. 結 論 |

I. 序 論

2次大戰후에 독립한 第3世界 國家들이 政治的 安定을 이룩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政治的 不安 및 政治的 破局에 직면하고 있는 理由가 政治制度的 未備에도 기인하겠지만, 이와 아울러 그 制度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意識水準이 낮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면 開途國의 民主發展을 論함에 있어, 그 國家의 특수한 社會的 條件 특히 政治文化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政治文化란 Almond와 Powell에 따르면, “한 國家의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 政治的 事件에 대한 個人的 態度, 믿음, 느낌의 集合”¹⁾이라고 定義하고, “한 國家의 政治文化는 國家 構成員들 사이의 政治的 對象에 대한 定向의 특정한 分布”²⁾를 의미한다고 한다.

定向이란 Almond와 Verba에 의하면, 對象(objects)과 關係(relationship)의 內面化된 側面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① 認知的 定向(cognitive orientation)—政治體系와 그 役割·役割擔當者·投入 및

- 1) Gabriel A. Almond and G. Bingham Powell, Jr., *Comparative Politics: System, Process, and Policy* (2nd e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8), p.25.
- 2) G. A. Almond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63), pp.14~15.

* 師範大學 專任講師

産出에 대한 知識과 信念, ② 感情的 定向(affective orientation)—政治體系와 그 役割·人士(personnel) 및 業務遂行에 대한 느낌, ③ 評價的 定向(evaluative orientation)—政治的 對象에 대한 判斷과 意見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³⁾

Lucian W. Pye는 政治文化를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政治文化란 政治過程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고, 또한 政治體系內的 行동을 규제하는 기본적인 前提와 規則을 부여하는 態度, 信念 및 感情的 集合이다. 그것은 政治體(polity)의 政治理念과 操作的 規範을 포함한다. 따라서 政治文化는 政治的 心理的이며 主觀的인 次元이 集合的인 形態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政治文化란 政治體系의 집합적인 역사뿐만 아니라, 政治體系 구성원의 生活史의 産物이며, 그것은 公的인 事件과 私的인 經驗에 다 같이 뿌리를 둔다.”⁴⁾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政治文化란 한 나라 國民의 政治的 定向의 特性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政治文化和 政治定向을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기로 한다.

한 社會體系를 구성하는 것은 人間이므로, 어떤 人間에 의해서 그 體系가 유지되는가에 따라, 그 體系의 質도 달라지기 마련이며, 따라서 特定社會의 政治狀況이나 民主發展 정도를 충분히 分析하기 위해서는 한 體系의 構成員인 個人들의 心理的 側面 즉, 個性·態度·認知·信念·價值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問題意識에서 출발, 독립한 이후 여러 차례의 政治的 變革을 겪으면서, 政治的 不安에 시달려온 韓國의 政治狀況을 分析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 글에서는 韓國政治文化의 性格과 그 결과 초래되는 政治的 不安要因을 고찰하려 한다.

本稿의 研究方法은 文獻研究를 중심으로 했으나, 韓國의 政治文化를 分析함에 있어서는 既存의 經驗的 資料를 이용했다. 즉, 各 集團을 職能別로 분류한 후, 이들의 政治文化를 分析하기 위해 政治的 關心度, 政治的 自信感 및 政治的 投入能力, 體制順應度, 妥協精神 및 價值的 相對性 程度의 分析指標을 설정하여 기존의 經驗的 資料를 再解釋하였다.

끝으로 本稿의 범위는 대략 1945년부터 1970년대까지로 잡고 韓國政治文化의 性格을 검토하고 있으나, 특히 各 集團의 政治文化를 分析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다룬 시기는 1970년대이다.

II. 韓國政治文化의 基本性格：權威主義的 定向

韓國政治文化를 연구하는 대다수의 學者들은 韓國政治文化의 基本性格으로서 權威主義를 들고

3) Ibid., pp.15~17.

4) Lucian W. Pye, “Political Culture,”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Vol.12, New York: Macmillan and the Free Press, 1974, p.218; Dennis Kavanagh는 政治文化를 市民이 政治에 대하여 갖는 전반적인 定向配分이라고 定義한다. Dennis Kavanagh, *Political Culture* (Macmillan, 1972), p.11.

있다.⁵⁾

Erich Fromm은 權力을 숭배하고 權力에 대해 복종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발생하는 열등감을 자기 자신이 權力을 장악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 예속적으로 복종케 함으로써 보상받으려는 性格을 權威主義的 性格(authoritarian personality)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⁶⁾ 특히 복종에서 오는 劣等感 또는 不安感을 메꾸려는 충동과, 반발적으로 上者의 權力에 의존하여 他者에게 卓越하려는 補充慾을 느끼며 權力慾을 가지게 된다.⁷⁾ 그리고 이러한 衝動과 補充慾 또는 權力慾은 服從의 度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強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權威主義的 政治定向이란 어떤 權威體와 엘리트에 대한 被治者들의 무조건적 복종과, 權力엘리트 또는 支配階級이 被治者들을 강압적으로 支配하려는 行態라고 定義할 수 있겠다. 또한 意識構造面에서 열등한 자신을 은폐하고 보다 우등한 것에 자신이 속한다는 것을 誇示함으로써 스스로의 權威를 느끼는 性向을 포함한다.

尹天柱教授는 이러한 權威主義的 定向이 韓國人의 政治定向에 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權威主義的 專制政治가 대두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⁸⁾

그런면 韓國人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權威主義的 政治定向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韓國學者들이 제시한 것으로서 韓國民이 權威主義的 定向을 갖게한 역사적 근거들을 대표적인 것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⁹⁾ 古代의 精靈思想을 기초로 한 강력한 巫俗의 傳統(또는 사마니즘적 神祕主義), 神權的 統治意識, 敬天敬愛思想, 家父長的 傳統, 男子支配傳統, 朱子學的 天命德治思想(또는 王道政治思想), 君主主義的 傳統, 官僚的 엘리티즘, 전통적으로 강력한 中央集權的 統治, 儒敎의 三綱五倫 등 禮規, 班常의 區別 등 品階制에 따른 位階的인 社會的 構造와 階級意識, 심히 제한된 社會的 流動性, 官僚的 權威에의 貪慾性, 官의 支配와 民의 服從的 傳統, 日帝의 官僚的 植民統治, 先例 및 慣行의 固守, 資本主義制度의 도입 결과 金錢萬能과 拜金主義思想으로 인한 金力의 權威化 등이다. 이 중에서 儒敎의 政治傳統이 權威主義的 定向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좀더 샅론하기로 한다.

5) 이러한 論文들로는 韓培浩, “韓國政治文化의 主要傾向,” 韓國社會科學研究所編, 「韓國社會論」(서울: 民音社, 1980), pp. 50~70; Hahn Bae-ho, “Political Culture in Korea: Some Central Tendencies,” in Hahn Bae-ho and Yamamoto Tadashi. eds., *Korea and Japan: A New Dialogue Across the Channel* (Seoul: Asiatic Research Center, 1978), pp. 3~33; 韓太壽, “韓國大衆의 政治意識에 關한 考察,” 「芝陽 申基碩博士華甲紀念學術論文集」(서울: 三和印刷所, 1968), pp. 491~527; 趙一文, “韓國政治文化의 構造의 特質,” 「建大學報」, 1973年 2月, pp. 101~109참조.

6) Erich Fromm, *Escape From Freedom* (New York: Avon Books, 1972), p. 163.

7) Ibid., p. 136.

8) 尹教授는 權威主義的 政治定向의 特性이 掌握의 支配와 隸屬의 服從에 있다고 본다. 尹天柱, 「韓國政治體系」(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61), pp. 255~286 참조. 李知勳教授는 權威主義的 定向을 “各 個人의 社會的 地位(地位, 身分, 年齡, 先後輩, 金力 등)를 중심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 즉 上·下間의 階層의 人間關係의 설정을 順理로 認知하는 性向”이라고 定義한다. 李知勳, “韓國政治文化의 基本要因,” 「韓國政治學會報」, 第16輯, 韓國政治學會, 1982, p. 111.

9) 李知勳, 上揭論文, p. 110.

첫째로 儒敎의 엘리트階級 支配體制의 영향은 新羅·高麗時代에도 작용하였으나, 朝鮮時代에 와서 儒敎가 國敎로 채택됨에 따라, 그것은 현대의 全體主義 이데올로기 이상으로 韓國人의 思想과 行動을 支配하여 왔다. 그 결과 韓國의 傳統社會는 君主를 頂點으로 하는 견고한 엘리트階級 支配體制를 형성했으며, 엄격한 階級秩序를 이루었고, 家父長的 權威主義가 支配하는 文化類型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內面化·體質化하여 韓國人의 人性構造와 社會性格을 이루어 버린 것이다.¹⁰⁾

그러나, 이러한 儒敎社會의 權威主義가 오늘날의 엘리트主義의 前近代의 表現으로서 반드시 나쁜 뜻으로만 받아들여야 할 意識構造는 아니었다. 東洋의 權威는 百姓에 대한 「仁」 또는 「慈悲」라고 하는 思想의 根據에 뒷받침되어 善政과 敎化의 義務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國民에 대한 貴族階級の 特權이나 支配權力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儒敎는 또한 權力政治를 霸道政治라고 배척하였고, 儒敎哲學에 있어서 君主政治는 바로 王道政治—德治主義—民本主義의 理念定立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¹¹⁾

그러나, 儒敎의 德治主義의인 爲民思想은 理念上으로는 民本主義를 主張하고 있었으나, 現實政治에 있어서는 항상 權威主義—엘리트主義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다. 즉, 政治權力은 國民의 政治的인 覺醒과 적극적인 政治參與를 토대로 하여 國民에 의해 「밑으로부터 形成된 것」(government by the people)이 아니라, 國民을 爲한다는 名目下에(爲民思想, 民本主義) 이루어진 統治集團의 良識과 自制力에 의존하는 엘리트들에 의해 창출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國民은 統治엘리트에 종속되어야만 했고, 이러한 體制를 維持시키기 위해 政治構造는 엘리트 中心的인 權威主義的 體制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로, 儒敎의 영향으로 들 수 있는 것은 儒敎가 自我 또는 個人을 말살시킴으로써 批判精神을 결여시켰다는 점이다. 儒敎의 人間觀은 사람을 하나의 獨立된 人格體로 보는 平等한 人間觀이 아니고, 從의 關係에서 보는 不平等한 差別의 人間觀이다. 그것은 個性이 뚜렷한 自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兩班과 상놈의 人間關係, 男女間的 신분적 階級關係, 年長者와 年少者間的 엄한 上·下關係, 父母와 자식간의 服從關係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곳에서는 自我가 자유롭게 성장할 길이 막혀있을 뿐만 아니라 自己를 내세우다가 자신의 과멸만을 맞게 되기 때문에 감히 그러한 것을 주장할 수가 없었다.¹²⁾

또한 韓國人은 日常生活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나의 집」 보다는 「우리 집」, 「나의 學校」 보다는 「우리 學校」 등 자신의 自我를 내세우는 것보다, 자신이 속한 集團을 먼저 내세우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보다는 集團을 먼저 내세우는 것은, 자신의 의견과 집단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야박하다고 여기고, 集團 또는 리더의 의견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을 낳는다.¹³⁾

10) 韓昇助, 「韓國民主主義와 政治發展」(서울: 法文社, 1979), p. 154.

11) 朴鍾鴻, 「韓國의 思想의 方向」(서울: 博英社, 1968), pp. 251~255; 李相殷, 「儒敎의 理念과 韓國近代化의 問題」, 「韓國近代化의 理念과 方向」(서울: 東國大學校, 1967), pp. 192~193; 韓昇助, 上揭書, p. 155 참조.

12) 尹泰林, 「韓國人의 性格」(서울: 現代敎育叢書出版社, 1970), pp. 147~148 참조.

이러한 경향은 韓國人의 意識構造에 어떠한 權威에 奉종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權威主義的 性向을 多분히 배태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세째로, 儒敎의 中央集權의 行政官僚國家의 전통이 權威主義的 政治文化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行政官僚의 支配體制는 東洋政治社會의 가장 보편적이며 지속적인 지배 형태였다. 傳統社會에서는 儒敎의 古典에 通曉한 學者, 官僚層이 支配層을 이루었는데, 이들은 당대의 貴族兩班階級 출신으로서 科學나 考試를 통하여 登용되었다. 이 公開試驗의 科目은 儒敎古典으로부터 法學으로 바뀌었으나, 行政엘리트의 充員方法은 日帝時代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단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官僚支配階級은 좋은 가정적 배경이나 엘리트敎育 훈련과정을 거쳐 치열한 경쟁을 거친 엘리트이다. 그 결과 이들은 國民大衆에 대하여 排他性, 優越感, 勝者意識, 支配者根性과 같은 特權意識을 갖는 경향이 있었다. 官權萬能의 社會風土 속에서, 특히 地位·權力이 곧 學問과 德行의 程度에 비례하는 것으로 認識하는 儒敎文化의 전통 속에서 官尊民卑, 權力에 대한 집념과 동경이 더욱 간절했고, 이것이 權威에 대해서는 아부와 영합으로, 國民大衆에 대해서는 威壓的인 態度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¹³⁾

現代의 모든 國家는 福祉國家를 지향한다. 그런데 福祉政策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行政府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行政官僚의 肥大化는 불가피하다. 韓國 역시 이런 점에서 例外일 수 없다. 現在 한국의 行政엘리트의 역할은 더욱 확대·강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行政엘리트의 優越感, 權威意識, 엘리트根性 등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일 것이다.

Gregory Henderson은 韓國의 政治가 中央權力을 향해서 모든 활동적 요소를 휘몰아가는 회오리 바람과 같다고 보고, 韓國人들은 中央權力의 性格如何를 막론하고 이에 회오리 바람과 같이 끌려가는 性向이 있다고 하였다.¹⁴⁾ 그는 이러한 性向이 韓國社會의 歷史的 同質性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즉, 韓國에서는 利害關係의 對立, 宗教的 對立, 政策의 差異, 이데올로기적 차이 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며, 그러한 對立이나 差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政治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韓國社會는 中央權力과 大衆 사이를 중개해주는 結社體가 없어 中央權力이 原子化된 大衆을 직접 대하고 있는 大衆社會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社會에서 大衆은 階層別이든 職能別이든 각자의 利害關係에 따른 結社體를 형성, 독자적인 힘의 基盤을 형성하지 못하고 中央의 政府權力에 의해 조작당하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고 한다.

以上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韓國政治文化의 基本性格은 儒敎의 엘리트階級 支配體制, 自我的

13) 윤대섭 박사는 韓國人들이 자신의 意見보다 리더의 意思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Dae-Sob Yoon, "A Study of Korean Political Culture," *Proceedings of the Second Joint Conference* (Seoul: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1977), pp. 47-62 참조.

14) 韓昇助, 前掲書, p. 156; Bae-Ho Hahn, "The Authority Structure of Korean Politics," in Edward Reynolds Wright, ed., *Korean Politics in Transition*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75), pp. 290-296 참조.

15)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8), pp. 4-5.

抹殺 및 中央集權의 行政官僚體制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분히 權威主義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이후 西歐文物의 도입 및 近代化 推進의 영향으로 인해 韓國政治文化의 基本性格인 權威主義的 定向과는 상이한 民主主義的 定向이라는 對立된 性格이 나타남으로써, 韓國政治文化에는 政治文化의 二元性이 형성되고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논하기로 하자.

Ⅲ. 韓國政治文化의 二元性：權威主義的 定向 對 民主主義的 定向

일반적으로 開發途上國에 西歐文物이 도입되고, 産業化가 이루어지면, 教育水準이 향상되고, 매스미디어의 보급이 증가되어 世俗的·合理的인 態度를 지닌 市民들이 창출된다고 한다.¹⁶⁾ Inkeles와 Smith는 開途國 6개국(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쉬)의 5,000명의 응답자로부터 教育, 工場에서의 就業經驗 및 매스미디어와의 접촉이 個人的 近代性(individual modernity)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도출하였다.¹⁷⁾ 즉 近代化 推進으로 말미암아 教育水準이 상승되고 매스미디어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지며 공장에의 취업경험이 증가함으로써 「個人的 近代性」¹⁸⁾이 창출되어 近代的인 民主主義的 定向이 사람들에게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近代化로 인한 社會經濟的 變動이 政治社會化 과정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의 政治 定向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다.

韓國의 경우도 西歐文物의 도입과 60년대 이후 共和黨政府에 의해 추진된 近代化로 인해 이러한 變化가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¹⁹⁾ 그러나 韓國은 近代社會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으므로 傳統的인 權威主義的인 政治定向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現代

16) G. A. Almond and G. B. Powell, Jr., op. cit., p.46.

17) Alex Inkeles and David. H. Smith. *Becoming Modern: Individual Change in Six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4). p.290: 裴成東, 吉榮煥, 金宗林 教授도 韓國의 2,276명의 응답자로부터 교육수준과 도시화의 정도가 근대적 사고방식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증명했다. 裴成東·吉榮煥·金宗林, “韓國人の 政治參與形態와 그 特性,” 「第1回 韓國政治學會·在北美韓國人政治學者會 合同學術大會論文集」, 韓國政治學會, 1975, p.325참조.

18) Inkeles는 個人的 近代性의 속성으로 9가지를 든다. ①혁신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과 새로운 경험을 위한 준비성, ②주변의 폭넓은 화제에 대해 의견을 갖고 싶어함, ③의견의 다양성 인정, ④미래지향적 태도, ⑤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 ⑥합리적 세계에 대한 믿음, ⑦타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⑧과학과 기술에 대한 신념, ⑨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 등이다. Alex Inkeles, “The Modernization of Man.” in Myron Weiner, ed., *Modernization* (New York: Basic Books, 1966). pp.138~150참조.

1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康根亨, “政治文化의 視角에서 본 韓國政治發展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82, pp.46~66참조: 이남영교수도 산업화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의식이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남영, “산업화와 정치문화: 민주의식변화를 중심으로,” 「韓國政治學會報」, 第19輯, 韓國政治學會, 1985, pp.77~95참조.

韓國政治文化에는 權威主義的 定向과 民主主義的 定向이라는 대립된 性格이 공존하는 政治文化의 二元性의 問題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론된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韓國社會의 각 集團에 政治文化의 二元性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고찰하겠다.

1. 各 集團의 分類基準

各 集團의 政治定向을 분석하기에 앞서, 여기에서 各 集團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 분류했는가를 논하기로 한다.

한 社會內에는 다양한 集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基準에 따라 集團을 분류하여, 이들의 政治定向을 分析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年齡과 職能의 기준만을 사용하여 各 集團의 政治定向을 分析해 보기로 한다.

우선, 年齡別로 各 集團을 분류, 이들의 政治定向을 분석했을 경우, 韓國에서는 독특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李永鎬教授는 한국사회가 年齡에 따라 教育水準 및 政治社會化 과정의 차이로 인해 各 年齡層의 政治定向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한다.²⁰⁾ 즉, 젊은 세대는 나이만 젊을 뿐 아니라, 비교적 教育水準도 높으며, 해방이후의 정치풍토 속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舊世代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政治定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한다.²¹⁾

특히 傳統社會에서 近代社會로 이전하고 있는 過渡期社會에서는 成長背景, 教育水準 등 政治社會化 과정의 현격한 차이가 각 세대간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韓國의 경우는 植民統治를 경험한 解放前世代와 西歐式 教育을 받은 解放後世代와는 政治定向面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40代 이상의 解放前世代는 20代·30代에 비해 教育水準이 비교적 낮고, 強壓的인 日帝의 政治風土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들은 傳統的인 權威主義的 政治定向을 다분히 지니고 있을 것이며, 20代·30代의 解放後世代는 그와는 대조적인 環境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비교적 近代的인 民主主義的 政治定向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經驗的 資料가 없어 분명히 말할 수는 없겠으나, 年齡別을 기준으로 하여 政治文化를 分析할 경우에도, 政治文化의 二元性, 즉 權威主義的 定向과 民主主義的 定向이 各 年齡層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基準에 의한 政治文化의 分析은 政治社會化 과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는 앞으로의 研究課題로 삼기로 하고, 本稿에서는 제외시키려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職能別 基準에 의한 分析만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겠다.

職能別로 各 集團을 분류할 경우에도, 다양한 集團分類가 가능하겠으나, 여기에서는 주로 與黨國會議員, 農民, 大學生, 教授, 新聞記者 및 勞動者集團만을 선택했다. 이 중에서도 與黨國會

20) 李永鎬, “現代韓國의 政治文化,” 金雲泰外, 「韓國政治論」(서울: 博英社, 1984), pp. 214~227 참조. 李教授는 여기에서 40代 이상의 세대는 鄉里的·臣民의 政治定向을 20代와 30代는 參與的 政治定向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21) 日本의 경우, 이러한 視角에서 政治文化, 政治社會化를 연구한 것으로는 다음 참조. Joseph A. Massey, *Youth and Politics in Japan* (Toronto: D. C. Heath and Company, 1976). pp. 1~17.

議員은 「執權엘리트」(ruling elite), 大學生, 敎授, 新聞記者는 「非執權엘리트」(non-ruling elite)라는 集團에 포함시켰다. 以外에도 公務員, 專門職人 등 여러 集團이 있을 것이나, 資料의 부족 상 제외하였다.

2. 分析方法

한 集團의 定向이 權威主義의이나 民主主義의이나 하는 것은 區分하기가 매우 어려운 問題이기 때문에 비교적 客觀的인 分析指標를 설정, 이것을 가지고 分類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Almond와 Verba가 주장한 3가지 類型의 政治文化와 한 集團의 體制順應(肯定)的인가 體制批判(否定)的인가하는 點과 民主主義의 基本精神인 妥協精神 및 價値의 相對性 등을 그 指標로 삼았다.

첫째, Almond와 Verba의 主張에 의하면, 鄉里的 政治文化(parochial political culture)는 傳統的 政治體制에, 臣民的 政治文化(subject political culture)는 中央集權的인 權威主義的 政治體制에, 參與的 政治文化(participant political culture)는 民主的인 政治體制에 적합하다고 한다.²²⁾ 따라서 鄉里的 政治文化와 臣民的 政治文化를 갖고 있는 集團은 일단 權威主義的 政治定向을, 參與的 政治文化를 보유하고 있는 集團은 民主主義的 政治定向을 견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以上の 3개의 政治文化는 Almond와 Verba가 제시한 政治文化의 理想型(ideal types)인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鄉理的 政治文化는 政治體系에 대한 認知度, 投入能力, 產出能力 및 政治的 自信感이 매우 낮은 것으로서, 社會成員들의 政治的 定向이 宗教的 내지는 社會的 定向과 구별되지 않고, 그들의 政治的 認識의 범위도 그들이 生活하고 있는 협소한 地域에 한정되어 있으며, 개개인들도 政治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政治的 自信感이 弱한 文化이다.

臣民的 政治文化는 政治體系에 대한 認知度 및 產出能力은 매우 높으나, 投入能力 및 參與者로서의 政治的 自信感은 낮은 文化이다. 즉, 社會成員들이 전문화된 政府의 權威를 알고 있고, 그들의 政治的 意識의 범위도 그들이 生活하고 있는 협소한 地域이 아닌 中央의 政治體系에까지 擴張되어 있으나, 中央政府의 權威에 대하여 臣民的인 態度를 가지고 있는 文化를 말한다.

參與的 政治文化는 政治體系에 대한 認知度, 投入能力, 產出能力, 政治的 自信感이 모두 매우 높은 文化로서, 政治的 參與 또한 自發的이며 積極的인 文化를 말한다.²³⁾

그러나 이러한 세가지 형태의 政治文化는 어디까지나 理想型이며, 실제로는 항상 세가지가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봐야 할 것이다.²⁴⁾ 즉, 鄉里的 政治文化가 主流를 이루고 있느냐, 臣民的 文化가 주류를 이루고 있느냐, 參與的 文化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더욱 妥當할 것이다. 따라서 重要的 것은 한 集團이 나타내는 政治定向의 程度에 따라, 그 集團이 어떤 政治文化를 갖고 있는가를 分析해야 한다는 點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政治的 關心度, 政治的 自信感 및 投入能力을 중심으로 각 집단인 政治定向

22) G. A. Almond and S. Verba, *The Civic culture*, op. cit., p. 20참조.

23) Ibid., pp. 12~26; 崔明, 「比較政治學序說」(서울: 法文社, 1979), pp. 162~165.

24) 政治文化의 現實型에 대해서는 崔明, 上揭書, pp. 165~171참조.

을 분석했다. 즉 政治的 關心度, 自信感 및 投入能力이 높은 文化는 參與的인 것으로 간주하며, 위의 세능력이 모두 낮은 文化는 鄉里的 또는 臣民的인 것으로 본다.

둘째의 指標는 體制順應(肯定)的인가, 體制批判(否定)的인가 하는 點이다. 위의 것과 관련시켜 보면, 臣民的 定向을 갖는 사람들은 產出能力은 높고, 政治的 自信感은 낮기 때문에 權威에 무조건 服從하는 性向이 있어, 政府가 쉽게 動員할 수 있는 對象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定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體制肯定的이거나 體制順應的인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參與的 定向의 사람들은 政府에 대한 投入能力 및 政治的 自信感이 높기 때문에, 政府의 施策等에 대해 무조건 順應하지 않으며, 항상 비판을 한 다음에 자신의 決定을 내리게 된다. 더구나 政府가 權威主義的인 體制라면, 이러한 定向의 所有者들은 體制否定的이거나 體制批判的이 될 확률이 높다. 특히 開發途上國의 權威主義的 體制에서는 體制順應(肯定)的이나 體制批判(否定)的인 指標가 權威主義的 定向과 民主主義的 定向을 판가름하는 좋은 尺度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세째의 指標는 民主主義의 기본정신인 價値의 相對性 및 妥協精神인 바, 權威主義的인 定向을 갖는 사람일수록 價値의 絕對性을 믿고, 남과 쉽사리 妥協하려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은 또한 좋은 指標가 될 것이다.²⁵⁾ 여기에서는 資料의 부족상 위의 諸指標들중 몇가지만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指標에 의해 여기에서 意味하는 權威主義的 定向과 民主主義的 定向을 定義해보면, 첫째 權威主義的 定向이란 鄉里的, 臣民的인 政治定向을 내포하고, 體制順應的이고, 價値 絕對的이며, 妥協精神이 弱한 定向이라 할 수 있겠다. II章에서 權威主義的 政治定向을 어떤 權威體나 權力엘리트에 대한 被治者들의 무조건적 服從과, 權力엘리트 또는 支配階級의 被治者들에 대한 強壓의 支配行態라고 定義한 바 있는데, 이것은 위에 定義한 내용과 그 맥을 같이한다. 왜냐하면 臣民的 定向에서 무조건적 服從이 나오며, 따라서 體制順應的이 되고, 強壓의 支配行態는 絕對的 價値觀이나 妥協精神이 부족한 데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民主主義的 定向이란 參與的 政治定向을 갖고 있으며, 權威的인 政府에 대한 批判的인 態度를 견지하고 있어, 自身의 政治的 役割을 충분히 意識하고 있고, 價値의 相對性 및 妥協精神이 풍부한 定向을 말한다.

여기에서 고찰하는 各 集團의 政治定向은 동일시점에서 일관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조사자료들을 재해석하여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集團들의 政治定向을 객관적으로 추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다만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조사자료가 70년대에 이루어졌고, 비교적 객관적인 분석자료로써 기존의 경험적인 자료들을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 각 집단의 政治定向의 일면을 추론하는 데는 유용하리라 본다.

25) 이남영 교수는 정치적 경쟁, 다수결 및 소수보호 원칙이 民主的 態도와 상관관계가 긴밀함을 경험적으로 증명했는 바, 이러한 요소들은 경쟁 상대를 인정해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價値의 相對性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남영, 전제논문, pp. 80~83참조.

3. 各集團의 政治定向

가. 執權엘리트

Dahl은 엘리트를 政策決定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諸集團의 頂上人들이라고 함으로써, 매우 多元的인 概念으로 사용하고 있다.²⁶⁾ 따라서 執權엘리트라고 하면, 政策決定에 참여하는 모든 者를 포함해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政策決定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與黨國會議員들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定義하고자 한다.

李永鎬教授가 1970년대 초에 共和·新民 兩黨 國會議員全體(105名)와 國民(409名)들의 價値觀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다.²⁷⁾ 이 조사는 國民들의 샘플(sample)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신빙성은 없으나, 韓國國民의 意識構造의 一面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며, 특히 國會議員에 대한 조사는 전체 구성원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는 주로 이 研究結果를 中心으로 與黨國會議員들의 政治定向을 추론해 보겠다.

첫째, 國會議員들이 輿論을 어느 정도 意識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아직 韓國 國民의 知的 水準이 낮기 때문에, 指導者는 일반 國民의 輿論보다 自己의 信念에 따라서 行動하여야 한다는 主張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與黨인 共和黨 議員들은 찬성 52%, 반대 43%, 찬성도 반대도 아님이 5%를 보이고 있다.²⁸⁾ 이것을 다시 50세 미만 議員과 50세 이상 議員으로 區分해 보면, 50세 미만의 경우 찬성 36%, 반대 56%, 찬성도 반대도 아님이 8%를 나타내고 있으며, 50세 이상의 경우는 찬성 77%, 반대 23%, 찬성도 반대도 아님이 0%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與黨인 共和黨 議員들이 대체적으로 輿論보다 自己의 信念이 더 重要하다는 思考를 갖고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의 노장과 議員들의 경우는 그 程度가 훨씬 심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民意를 대변해야 할 國會議員들, 특히 政策決定에 중요한 役割을 하는 與黨議員들이 輿論을 輕視하고 있다는 것은 民主政治가 바로 輿論政治라는 觀點에서 볼 때, 실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國民의 政治意識水準이 낮기 때문에 自身의 所信이 더 重要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렇게 國會議員들이 일방적으로 輿論을 無視할 경우에는 國民들은 政治圈에서의 疎外感을 느끼게 될 것이며, 國會議員들을 不信하는 풍조가 팽배하게 될 것이다.

아름은 與黨議員들이 輿論보다 自己의 信念이 더 重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國民들 위에 군림한다는 다분히 權威主義的인 定向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의 問題와 관련하여, 國會議員들이 어느 정도의 妥協精神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協商하고 協力하는 것도 좋지만 政治人은 무엇보다 自己의 信念과 良心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主張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與黨議

26) Robert A. Dahl, *Who Governs?* (New Haven: Yale Univ. Press, 1961), pp.181참조.

27) 李永鎬, 「韓國國民의 價値觀」 (서울: 一志社, 1975).

28) 上揭書, pp.107~108.

員들은 찬성 93%, 반대 5%, 찬성도 반대도 아님이 2%로서, 찬성이 압도적이다.²⁹⁾ 이러한 사실들은 國會議員들이 자신의 信念을 얼마나 重視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서로 妥協하지 않고 자신의 主張만이 옳다고 고집할 때, 참다운 民主主義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民主主義는 價値의 相對性을 前提로 한다고 한다. 價値의 相對性이란 나의 意見도 옳을 수 있지만 남의 意見도 옳을 수 있다는 思考이며,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의 意見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兩者의 意見이 相衡될 경우, 이것을 하나의 意見으로 모아 合意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妥協하고 양보할 수 있는 融通성이 요청된다. 그런데, 이러한 融通성은 個人的 價値觀에서도 비롯되지만, 基本的으로는 한 社會의 信賴感에 기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相互信賴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는 상대방과의 妥協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韓國에서는 他黨과 妥協하는 者를 흔히 「사꾸라」로 간주, 非倫理視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우리 社會에 아직도 相互信賴의 風土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與黨議員들의 대부분이 妥協보다 自身的 信念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相對主義的 價値觀보다는 絕對主義的 價値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매우 경직된 思考를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내 자신의 意見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意識은 權威主義的 政治定向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的 두가지 質向만으로 與黨議員들의 政治定向을 一般化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어떤 형태의 政治定向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대략 推論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즉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與黨議員들은 輿論이나 他黨과의 妥協보다는 自身的 信念을 더욱 重視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들은 바로 그들이 自身的 意見이나 信念을 最上의 것으로 간주하는 權威主義的 政治定向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特記할 事項이 있다. 윤대섭 博士는 韓國政治文化의 特徵이 「集團同一性」(group identity)과 「位階의 關係」(hierarchical relationship)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性向으로 말미암아 韓國人은 한 집단의 權威的인 人物(指導者)에게 自身的 모든 決定을 일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³⁰⁾ 우리가 이러한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第3共和國 共和黨 政權의 執權엘리트인 政府閣僚 및 與當國會議員들은 모두 朴正熙大統領의 決定에 복종하게 되며, 따라서 朴大統領의 意思是 곧 執權엘리트 集團의 意思가 된다는 結論이 도출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學者들은 朴正熙大統領이 日帝의 權威主義的 社會環境 속에서 성장했고, 철저한 位階的·服從的인 軍隊社會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옳다고 믿는 信念은 남과 妥協할 줄 모르는 絕對主義的 思考方式을 갖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그의 政治定向은 다분히 權威主義的인 性格이 強했다고 지적한다.³¹⁾

29) 上揭書, p. 109.

30) Dae-Sob Yoon, op. cit., pp. 47~62참조.

31) 韓昇助, 「韓國政治의 指導理念과 領導者」, 金雲泰外, 「韓國政治論」(서울: 博英社, 1984), pp. 546~571참조; 朴大統領의 政治定向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康根亨, 前揭論文, pp. 75~81참조.

따라서 朴大統領의 政治定向이 權威主義的이기 때문에, 執權엘리트集團의 政治定向도 자연적으로 權威主義的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 農民

앞에서 설정한 分析指標들을 적용, 農民들의 政治定向을 살펴보겠다.

첫째 農民들의 政治的 關心度を 分析하기 위해 吉昇欽教授의 研究³²⁾를 中心으로 고찰하겠다. 이 研究는 尹天柱教授가 1963년에 실시한 조사 결과³³⁾와 비교하기 위해 同調査의 표본집단이었던 全南의 光州(都市), 慶北의 尙州(邑) 및 江原道の 平昌(面)에서 위의 調査設問紙와 비슷하게 꾸며 1978년에 실시한 것이다. 吉教授는 同調査에서 政治的 關心度を 알아보려고, “선생님은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은 1963~1978년간 세지역 모두 증가했는데, 농촌인 平昌과 尙州의 경우는 각각 19.0%에서 31.3%, 28.8%에서 38.4%로 도시인 光州는 45.5%에서 49.7%로 증가했다. 이 결과는 농민이나 도시민이나 정치적 관심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農民들의 關心도가 都市民들의 관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으로 보아, 아직도 농민들의 정치적 관심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農民들의 體制意識이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자. 洪承稷·李永鎬 兩教授가 政治指導者에 대한 國民들의 態度를 분석하기 위해 1972년에 행한 연구결과를 인용하겠다.³⁴⁾ 우선 “韓國은 많은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政治的 問題를 잘 처리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농민들은 긍정적인 대답이 66.4%, 부정적인 답이 9.4%로 매우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³⁵⁾ 또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의 지위에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렇다 51.9%, 아니다 8.5%, 모르겠다 45.5%로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³⁶⁾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렇다 51.1%, 아니다 20.9%, 모르겠다 26.4%로서 비교적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³⁷⁾ “지도자들은 國民들의 福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다.”에 대해서도 그렇다 48.5%, 아니다 28.9%, 모르겠다 20.9%로 매우 긍정적이다.³⁸⁾ 위의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韓國 農民들의 많은 수가 體制肯定的 또는

32) 吉昇欽, “韓國人의 政治意識構造 變化: 1963년과 1978년,” 「韓國政治學會報」, 第14輯, 韓國政治學會, 1980, pp. 89~103참조.

33) 尹天柱, 「韓國政治體系: 政治狀況과 政治參與」(서울: 서울대학교 出版部, 1978), 附錄 참조.

34) Sung-Chick Hong and Young Ho Lee, “Popular Perception of Political Leadership,” in Dae-Sook Suh and Chae-Jin Lee, eds.,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76), pp. 134~135. 이 연구는 전체 샘플 1,744명을 高等學生, 大學生, 農民, 新聞記者, 國會議員秘書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큰 특색이 있다.

35) Ibid., p. 137.

36) Ibid., p. 146.

37) Ibid., p. 147.

38) Ibid., p. 141.

體制順應의이라는 點이다. 즉 그들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적합한 資質을 갖고 있으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最善을 다하고 있고, 國民들의 福祉에 대해서도 많은 關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政府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있다고 봄으로써 農民들이 政治體制 전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째로 農民들의 政治的 自信感을 파악하기 위해 “지도자들은 輿論보다는 自身の 信念에 의거 行動해야 한다.”는 質問을 擇해 봤다. 이에 대해 農民들은 찬성 39.6%, 반대 36.2%, 모르겠다 19.2%를 보였다.³⁹⁾ 이 질문은 政治的 自信感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좋은 질문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輿論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推測할 수는 있으므로, 이것으로서도 政治的 自信感의 一面을 파악하기는 可能하리라 본다.

위의 結果를 보면, 農民들은 輿論보다 指導者의 信念을 더 重視하는 것 같다. 이것은 결국 自己의 能力이나 影響力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指導者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獨裁政治를 可能하게 하는 要因이 된다. 아뭏든 이러한 사실로 보아, 農民들의 政治的 自信感은 弱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農民들의 妥協精神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政治人은 協商하고 協力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自己의 信念과 良心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農民들은 62% 찬성, 33%가 반대를 보였다.⁴⁰⁾ 이러한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農民들은 妥協을 美德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특히 政治人들의 妥協을 自己의 所信을 굽히는 것으로 간주, 매우 경원시하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與黨 國會議員들의 態度에서도 똑같은 性向을 發見할 수 있었다. 政治人들의 行動에 대한 認識을 가지고 農民들 개개인의 性向이 그렇다고 一般化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들 意識構造의 斷面을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다.

妥協精神이 부족하다는 것은 앞에서 잠깐 言及했듯이 自身の 意思가 絶對的이라고 생각하는 權威主義的인 定向이 다분히 意識속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意味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農民들의 政治定向을 政治的 關心度, 體制順應度, 政治的 自信感 및 妥協精神을 中心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 結果는 關心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며, 體制順應의이고, 政治的 自信感 및 妥協精神이 모두 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農民들의 政治定向이 아직은 臣民的이며(政治的 關心度 및 自信感이 낮다는 點에서), 따라서 權威主義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 非執權엘리트

非執權엘리트란 執權엘리트와 對立된 概念으로서, 定策決定에 직접 參與하고 있지는 않으나, 政策決定에 影響을 미칠 수 있으며, 國民輿論을 선도하는 集團이라고 定義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39) Ibid., p.143.

40) 李永鎬, 「韓國人的 價値觀」, op. cit., p.109.

는 大學生, 知識人層인 教授, 新聞記者들을 지칭하는 概念으로 본다.

첫째, 이들의 政治的 關心도가 어떠한 지에 대해 검토해보자. 洪承稷教授는 大學生들의 政治的 關心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생님은 政治問題에 얼마나 關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 관심이 많다가 41%, 관심이 좀 있다 43%, 관심이 별로 없다는 16%로서 84%의 大學生들이 政治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¹⁾ 高永複 教授의 調査에서도 韓國大學生들중 84%가 政治에 關心을 갖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 理由로서는 “삶과 직결된다고 느껴서”(27.5%), “대학생으로서의 社會的 의무감 때문에”(25.9%), “기성세대가 政治를 잘못하기 때문에”(22.1%) 등을 들고 있다.⁴²⁾

이런 결과를 보면, 大學生들은 엘리뜨意識을 갖고, 政治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教授나 新聞記者들의 政治的 關心도를 측정한 資料를 求할 수 없어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이들의 社會的 位置로 보아, 그 關心도는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政治的 自信感에 대해서 살펴보면, “輿論이란 무지와 感情에 좌우되기 때문에 政策을 樹立하는데 큰 도움이 못된다.”는 질문에 大學生들의 경우는, 그렇다고答한 비율이 10.2%, 그렇지 않다가 68.8%를 보였고, 新聞記者들은 그렇다가 5.5%, 그렇지 않다가 76.4%를 나타냈다.⁴³⁾ 大學生, 新聞記者들 모두 輿論이 政策樹立에 도움이 못된다는 것에 강한 부정적 反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輿論의 重要性에 대해 強力한 確信을 갖고 있음을 意味하는 바, 그러한 믿음은 自身の 政治的 役割을 높게 평가하는 데에 기초할 것이며, 따라서 이들의 政治的 自信感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 政治參與의 하나인 政黨參與에 대한 大學生들의 態度를 보면, 아주 찬성한다가 12.1%,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學生이 48.1%로, 60.2%의 學生들이 政黨參與를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⁴⁴⁾ 이와 같은 결과들로 보아 大學生 및 新聞記者들의 政治的 自信感은 높으며, 따라서 그것이 政治參與와도 직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세째로 體制意識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하자.

洪承稷, 李永鎬 兩教授의 연구결과 중에서 “韓國은 많은 어려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政治的 問題를 잘 처리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은 大學生의 경우 10.9%, 신문기자의 경우는 3.6%인데 비해, 부정적인 반응은 각각 51.6%, 53.6%를 보임으로써,⁴⁵⁾ 大學生 및 신문기자들이 政府의 能力이나 政策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 兩教授의 연구결과중 體制意識과 관련된 諸問題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大學生과 신문기자중 韓國의 지도자들이 國民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國民의 복지

41) 洪承稷, “韓國人的 安保意識,”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編, 「韓國安保의 諸問題와 政策方向」, 1976, p. 480.

42) 高永複, “韓國大學生의 意識과 思想,” 「現代社會」, 제2권, 제1호(1982년 봄), p. 27.

43) Sung-Chick Hong and Young Ho Lee, op. cit., p. 142.

44) 高永複, 前揭論文, p. 29.

45) Sung-Chick Hong and Young Ho Lee, op. cit., p. 137.

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며,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그들의 책임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政治적으로 성공하려면 人間關係보다 能力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평균 9%내외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大學生과 記者중 그들이 社會로부터 正當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6.8%, 5.5%에 지나지 않았다.⁴⁶⁾

이러한 모든 結果들로 보아, 大學生 및 記者들이 극히 體制否定的, 體制批判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大學教授들의 政治的 態度에 관한 調査로는 김귀영교수가 1978년에 발표한 論文이 있다.⁴⁷⁾ 이 조사는 전국 大學教授 4,700명중 761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그들의 政治的 態度를 조사한 것으로서, 대학교수들을 自由派·穩健派·保守派의 세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自由派는 社會民主主義와 혼합경제체제를 支持하고, 經濟發展을 위해서 個人의 自由가 희생될 수 밖에 없다는 論理를 거부하고, 韓國의 近代化를 위해서는 현존질서의 붕괴가 상당히 必要하다고 보는 사람들인데 반해, 保守派는 自由放任의 資本主義體制를 옹호하고, 經濟發展을 위해 個人 自由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見解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穩健派는 이 두 파의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이다. 조사결과를 자유파에 속한 教授가 40%, 온건파 45%, 보수파가 15%로 나타나 있다. 自由派들은 體制에 대하여 否定的인 態度를 가졌을 것이고, 온건파는 모호한 태도를, 보수파는 순응적인 태도를 가졌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教授들도 매우 體制批判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價値의 相對性에 대해 살펴 보면, “教授의 見解에 대한 反對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질문에 대해 大學生중 83%가 反對를 표명했으며, 단지 15.5%만이 찬성을 표했다. 또한 “소수는 다수의 見解에 反對해서는 안된다.”는 질문에서도 54.6%가 否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있다.⁴⁸⁾ 이러한 결과들은 大學生들의 소수의사 존중 태도가 매우 분명함을 보여준다. 民主主義는 價値의 相對性에 기초한다. 多數의 의사가 중요하긴 하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므로, 多數가 少數의 意思를 무시할 배타적인 權限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價値의 相對性을 前提로 해야만 상대방과 妥協할 수도 있으며, 相互信賴의 기반이 조성된다. 나의 意見이 옳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意見도 옳을 수 있다는 相互信賴의 기반하에서는 妥協은 피동적인 順應이 아니라, 적극적인 參與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價値들은 절대적인 權威主義的 定向에서 보다는 相對的인 民主主義的 定向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

以上에서 우리는 非執權엘리트인 大學生, 記者, 教授들이 매우 參與的인 定向을 보이며, 體制批判的이며 價値의 相對性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政治定向은

46) Ibid., pp. 137~150참조.

47) Kim Quee-Yong, "Academic Discipline and Ideological Spectrum: The Korean Professoriate," *Asian Survey*, Vol. 18(Nov. 1978), pp. 1152~1167참조.

李正護, "韓國의 社會階層과 政治文化," 「現代社會」 제2권, 제1호, (1982년 봄), pp. 51~52에서 개인용.

48) Hong-Koo Lee, "Ideological Confusion and the Development of Citizen Political Culture," *Korea Journal*, Vol. 18, No. 4 (April 1978), p. 20. 이 연구는 전국 대학생 938명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民主主義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에는 勞働者集團의 政治定向에 대해 살펴보자.

라. 勞働者

勞働者들의 政治定向에 대해서는 金世珍 教授의 1971년의 調査結果를 中心으로 고찰하겠다.⁴⁹⁾ 이 調査는 9,171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勞働者들의 政治的 態度를 分析한 것인데, 그들중 20.7%가 노무자, 28.3%가 기능공, 19.5%가 기술자, 8.3%가 엔지니어, 14.6%가 사무원이었다. 또한 이들 勞働者中 大學教育을 받은 사람이 14.1%,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36.9%에 달하고 있는데, 大學教育을 받은 사람이 노동자집단에 속해 있는 것은 金教授가 중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엔지니어와 사무원을 노동자집단에 포함시킨 때문일 것이다.

첫째, 勞働者集團의 政治的 關心度를 알아보면, 金教授는 이것을 測定하기 위해, 그들이 이웃과 하는 이야기중 政治的 問題에 關한 것이 몇 %나 되는지를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應答者의 65.6%가 20% 혹은 그 이상이라고 대답하였다. 調査 當時가 與·野間의 對立이 심하고, 選舉時期였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結果는 勞働者들의 政治的 關心度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하겠다.

둘째, 政治的 自信感을 보면, 選舉를 통해 政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可能하거나, 어느 정도 可能하다고 應答한 수가 전체의 64.4%에 이르고 있고, 오직 31.8%만이 절대적으로 不可能하거나 거의 不可能할 것이라고 答하였다. 이로 보아 勞働者들의 政治的 自信感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고, 아울러 參與意識도 높을 것이라고 推論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投入能力을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으로, 그들이 勞働組合의 政治活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문항이 있는데, 그 결과는 應答者중 65.6%가 이를 찬성했고, 오직 19.5%만이 이를 反對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勞働組合의 機能에 대한 물음에서 勞働者의 권익옹호를 위해서는 政治活動을 해서 까지라도 實行하여야 한다는 對答이 63.9%를 보였다.⁵⁰⁾ 이러한 結果들을 보면, 勞働者들의 政治的 自信感 및 參與意識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勞働者들의 妥協精神 및 價値의 相對性, 體制意識에 대한 태도는 적당한 자료가 없어, 추론할 수 없으나, 위에서 본대로 勞働者들의 政治定向이 다분히 參與的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러한 태도에서도 農民보다는 非執權엘리트에 더 가까운 定向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金宗林教授는 한국성인 인구를 대상으로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 결과, 도시인들과 농촌주민들 사이에 정치적 태도 및 행태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도시인들이 농촌주민들보다 더 근대적 안목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보이며, 사회·정치적 변

49) Kim Se-Jin, "Attitudinal Orientations of Korean Workers," *Korea Journal*, Vol.12, No.9 (Sep.1972), pp.18~30참조; 李正馥, 前掲論文, p.49참조.

50) 韓國基督教社會問題研究院, 「韓國産業發展과 勞働者意識構造」, 1982, p.15. 이 조사는 전국에서 3,909명을 표본 추출, 조사한 것이다.

화에 더 민감하며, 더 강하게 민주적 원칙들을 지지한다는 것이다.⁵¹⁾ 이남영교수도 도시민들이 여러가지 정치적 자극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져 있으며, 여러 새로운 정치적 정보들에 쉽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도시인들이 농촌주민들보다 더 민주적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⁵²⁾

따라서 勞働者들이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의 주장으로 미루어 보아, 勞働者들의 政治定向은 權威主義와 民主主義의 중간적인 性向을 띠거나, 民主主義에 더 가까운 性向을 보일 것으로 추론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各 集團의 政治定向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執權엘리트의 경우는 政治的 關心度, 政治的 自信感 및 投入能力이 높으나, 妥協精神 및 價值的 相對性 정도가 낮으며, 매우 體制肯定的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指導者의 定向이 權威主義的이므로 해서 執權엘리트 集團 전체가 權威主義的 定向을 견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表〉 各 集團의 政治定向分布

分 析 指 標 \ 集 團 別	執權엘리트	農 民	勞 動 者	非執權엘리트
政 治 的 關 心 度	+	-	+	+
政治的 自信感 및 政治的 投入能力	+	-	+	+
體 制 順 應 (肯 定) 度	+	+	○	-
妥協精神 및 價値相對性 程度	-	-	○	+
權 威 主 義 定 向 程 度	+	+	○	-
民 主 主 義 定 向 程 度	-	-	○	+

※ +는 각 지표의 긍정도를 나타냄.
 -는 각 지표의 부정도를 나타냄.
 ○는 +와 -의 중간 정도를 나타냄.

農民의 경우는 政治的 關心度, 自信感 및 投入能力이 낮고, 妥協精神과 價值的 相對性 정도가 낮으며, 體制順應의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農民은 權威主義的 定向이 높은 集團이라 할 수 있겠다.

勞働者의 경우는 政治的 關心度, 自信感 및 投入能力은 높으나, 體制順應도와 妥協精神 및 價値相對性面에서 중간정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權威主義的 定向과 民主主義的 定向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51) Chong Lim Kim, "Political Participation and Mobilized Voting," in Chong Lim Kim, ed.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Santa Barbara, California: Clio Books, 1980), pp.114~119 참조.

52) 이남영, 전제논문, p.88참조.

非執權엘리트의 경우는 政治的 關心度, 自信感, 投入能力 및 妥協精神과 價値相對性 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 集團은 民主主義的 定向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定向이 한 집단에 나타날 경우, 그 定向의 정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즉, 상대적인 분포에 따라 동일한 政治定向의 集團간에서도 定向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은 政治文化의 二元性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集團간 政治文化의 相異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集團간 政治文化의 차이도 위의 各 集團의 分析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이상의 맥락에서 보면, 韓國政治文化의 特徵은 執權엘리트集團은 權威主義的 定向을 갖고 있는 반면, 非執權엘리트集團은 그와 相反된 民主主義 定向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過渡期 社會에서는 소수 엘리트의 定向은 近代의인데 비해, 다수 大衆의 定向은 傳統的이라고 한다.⁵³⁾ 그러나, 權威主義的 定向과 民主主義的 定向이라는 二元性의 次元에서 政治文化를 볼 경우, 韓國에서는 이와는 다른 性格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엘리트와 大衆의 政治定向의 相異뿐 아니라, 엘리트 내부의 執權엘리트와 非執權엘리트간의 政治定向의 乖離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産業化, 都市化의 영향으로 인해, 勞働者들의 政治定向이 점차 近代的인 民主主義的 定向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이러한 요인은 현재 도시 勞働者의 數가 農民의 數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들의 定向이 거의 民主主義的으로 변하게 될 경우, 韓國政治의 앞날을 좌우하는 큰 변수로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IV. 結 論

지금까지 韓國政治文化의 性格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 韓國政治文化의 基本性格이 權威主義的 定向이 강하며, 近代化 추진 이후 民主主義的 定向이 나타남으로써 기존의 權威主義的 定向과 공존하는 이른바 政治文化의 二元性이 韓國政治文化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政治文化의 二元性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각 집단간에 政治定向이 相異하게 분포되고 있다는 점도 추론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각 집단간 政治定向의 乖離가 70년대에 어떠한 政治的 不安要因을 야기시켰으며, 앞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를 고찰하면서 이 논의를 마치려고 한다.

政治文化의 二元性으로 인한 各 集團간 政治定向의 대립중에서 70년대 가장 문제시되었던 것은 執權엘리트와 非執權엘리트간의 갈등이었던 것 같다. 즉, 執權엘리트는 계속 權威主義的 定向으로 경직화되고 있는데 비해, 非執權엘리트는 參與的·民主主義的 定向으로 변하고 있음으로

53) Ronald H. Chilcote. *Theories of Comparative Politics: The Search for a Paradigm*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Inc., 1981). p.224참조.

써 兩者간에 빗어지는 乖離였다.

60년대의 한 연구를 보면, 급속한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개인의 自由가 어느 정도 희생되어야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단히 찬성하거나, 약간 찬성한다는 비율이 教授 59%, 言論人 60%로서 반대보다 높았다.⁵⁴⁾ 이 결과만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60년대에는 經濟成長 爲主政策이 識者層에서도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다는 사실은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초의 한 조사결과는 國民들의 定向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경제성장이 늦어지더라도 民主主義나 自由를 희생할 수 없다는 것에 국민들은 54%의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일반 국민들보다 知識人들인 非執權엘리트들은 이것에 더 많은 찬성을 보일 것은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執權엘리트인 與黨國會議員들의 경우는 위의 질문에 29%만이 동의를 하고 있다.⁵⁵⁾

바로 이러한 執權엘리트와 非執權엘리트간의 중요한 政策目標上的 定向의 乖離가 政治的 不安定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政治定向의 相異로 인해 發展目標 및 發展戰略에 대해 兩集團간에 합의를 이룰 수가 없으며, 따라서 政治는 妥協에 의한 和合의 政治가 아니라 強權에 의한 威脅의 政治로 전락하고 만다. 결국 執權엘리트는 더욱 경직화되고, 非執權엘리트는 그러한 가운데 政治的 疎外感을 맛보거나, 政治엘리트에 대한 극도의 不信感 내지는 정치적 냉소 및 무관심을 표명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불신감은 執權엘리트와 非執權엘리트의 차이를 넘어 國民간의 문제로 과급되게 된다.

이와 같이 國民들 상호간에 불신감이 팽배한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正統性的 危機」(legitimacy crisis)이다. 正統性이란 國民들이 政治的 權威體와 構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느냐는 문제이다.⁵⁶⁾ 國民들이 意識次元에서 진정으로 한 權威體를 인정하게 될 때 참다운 正統性은 발생한다. 이 점에서 正統性은 合法性(legality)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즉, 法的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國民들의 意識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合法性은 正統性이 될 수 없다. 國民들의 執權엘리트 및 그 權威體에 대한 不信은 正統性和 合法性의 불일치를 배태시키며, 따라서 政治的 冷笑主義와 政治的 無關心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978년 제10대 國會議員 선거에 대한 吉昇欽教授의 연구는 1960년 및 1963년에 비해 선거에 대한 國民들의 관심이 하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⁵⁷⁾ 즉, 慶北의 尙州邑民의 경우 선거에 대하여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습니다.” “조금도 가지지 않습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960년, 1963년 선거시에는 각각 6.4%, 19.7%였던 것이, 1978년 선거시에는 28.2%로 증가하였다. 도시인 光州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높다. 1960년, 1963년 각각 6.4%, 24.7%에서 1978년에는 42.6%

54) 洪昇稷, “經濟發展과 社會意識,” 「亞政研究叢書」, 제4집, 亞細亞政策研究院, 1979, p. 71.

55) 李永鎬, 「韓國人的 價值觀」, op. cit., p. 34.

56) Lucian W. Pye, “Identity and the Political Culture,” in Leonard Binder and J. S. Coleman et al., eds., *Crises and Sequences in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71), pp. 111~112참조.

57) 吉昇欽, 前掲論文, pp. 91~92참조.

로 증가하였다. 그러한 無關心의 이유 또한 “관심이 없어서”, “政治에 대한 불만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無關心의 增大要因은 政治的 不信 내지는 政治制度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는 正統性的 危機와 관련해서 야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民主政治가 參與에 의한 政治라는 관점에서 볼 때, 正統性的 危機와 政治的 無關心의 증대는 실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치적 냉소주의나 정치적 무관심 증대에 따른 정치적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政治制度의 민주적 개선과 아울러 국민들간의 信賴의 造成이 매우 요청된다. 相互信賴의 풍토 속에서 妥協點을 모색할 수 있을 때, 개개인은 參與意識을 가질 수 있으며, 정치권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信賴的·參與的인 政治文化的 형성이 正統性的 危機를 해소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되리라 본다.

그런데, 民主主義的 定向은 信賴的·參與的인 政治文化和 거의 유사한 定向이라고 할 수 있으나, 權威主義的 定向은 信賴的·參與的 政治文化和 매우 상충되는 定向이다. 왜냐하면 權威主義的 定向은 절대주의적 가치관을 배태시킴으로써, 他人과의 타협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國이 장기적으로 民主發展을 이루기 위해서는 權威主義的 定向集團을 信賴的·參與的인 民主主義的 定向集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과제가 된다. 즉, 相互信賴精神, 妥協精神, 參與精神을 가진 市民들을 육성시켜 各 集團에 골고루 퍼지게 함으로써, 集團內的 權威主義的 定向을 약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될 때, 集團內 또는 集團間 民主主義는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民主主義的 定向을 가진 市民教育이라는 政治社會化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견해는 民主發展을 지향하는 모든 開發途上國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olitical Culture

Kang Kun-hyung

The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political culture. For this study, my hypothesis is that the political instability in Korea is mostly due to political cultural dualism. Political cultural dualism can be defined as the juxtapositional existence of an authoritarian political culture and a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especially as found in transitional society. This political cultural dualism, usually brings about a political cultural gap among the many social groups. This causes authoritarian regimes, student and labor unions' anti-government demonstrations and a prevalent political indifference of the masses.

In this research, I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culture of some occupational groups in modern Korea: ruling elite group (ruling party's assemblymen), non-ruling elite group (university students, professors, journalists), farmers group, and workers group. The empirical data made by some scholars are used to meas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al culture and the degree of authoritarian or democratic attitudes found in each of the above groups. The degree of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confidence, political input capability, critical attitude toward government, ability to compromise, and value relativism are utilized as indicator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 have found that the ruling elite and farmers have a relatively more authoritarian political culture than a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the non-ruling elite, a more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workers, a neutral political culture. Such a political cultural dualism and political cultural gap have resulted in a legitimacy crisis which is the typical phenomena in politically unstable societies.

Therefore, I found the following conclusion: a stable democracy can be achieved when we have a democratic political culture which harmonizes the political cultural gap among the many political groups.